

# 2025년 9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

2025년 9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감사와 회복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진심어린 기도문 예시를 제공합니다. 가을이 문턱을 넘으며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운 은혜를 기다립니다. 9월의 첫 주일,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드러질 대표기도가 회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래 기도문 예시는 시기와 교회 현실을 고려해 진심 어린 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 2025년 9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1 – 감사로 시작하는 가을의 기도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시작하는 이 계절의 첫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아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숨결을 주심에 먼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을 첫 주일을 맞으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하는 이때,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더 깊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계절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되어 드러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번 주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가을의 첫 주일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200자 결론> 주님, 오늘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 2025년 9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 – 회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앉히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단했던 지난 계절을 지나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을 구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민족과 교회, 가정 안에 드리운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비취 주옵소서. 가정마다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깊은 한숨을 쉬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싸매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도 학교로, 직장으로, 가게로 나아갈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보호 아래 놓이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작은 용기를 허락하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소서. <200자 결론> 하나님, 이 기도가 상한 심령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 2025년 9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3 - 다음 세대를 위한 세움의 기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9월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학기,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혼돈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지쳐가는 마음들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존을 새겨 주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각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부모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교회는 그들을 품는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끄는 교사들과 인도자들이 먼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도 입시, 취업, 진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 주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대를 이끄는 믿음의 리더로 자라나게 하소서. <200자 결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